

영어 시제와 상

Tense and Aspect in English

김정오

광주여자대학교 어린이영어교육학과

Jeong-o Kim(meridian@kwu.ac.kr)

요약

본고에서는 시제의 일반적 정의와 상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 하였다.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의 굴절형'이고 따라서 시제는 문법범주의 하나로서 영어의 경우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인정하고 있다. 시제처럼 상을 문법범주로 인정한다면 그 기술 대상은 당연히 문법적 표현에 국한될 것이고 반대로 문법범주가 아닌 의미범주로 간주하면 문법적 표현은 물론이고 어휘적 표현까지 기술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은 문법범주로서 명시되어 있고 특히 영어의 상은 진행형과 완료형의 두 형태로 국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진행상(the progressive aspect)은 진행형, 완료상(the perfect aspect)은 완료형을 가리킨다. 제 2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시제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고 또한 각 시제의 용법들을 정의 하였다. 3장에서는 상의 정의를 제시하였고, 상에는 문법적, 의미적상이 있음을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시제와 상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법 범주이나 시각을 좀더 달리하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범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제와 상의 정의가 명확해지면 영어교육의 피대상자가 언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시제와 상에 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중심어 : | 시제 | 상 | 시간 | 진행상 | 완료상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nvestigate the general definition of Tense and the concepts about Aspect. I consid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xical and the grammatical aspect. Tense is an inflection type of a verb that indicates the time, tense is grammatical categories. Tense has the current tense and the past tense in English.

If we recognize aspect as a grammatical category, that the subject of in description will be confined to the grammatical expression. In contrast, when considered as a category of meaning, lexical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is the expression target. Therefore, aspect is stated as a grammatical category. Specially , the aspect of English, there is only a progressive tense and perfect tense. In this case, the progressive aspect is progressive tense and the perfect aspect is perfect tense. Chapter 2, I investigate the definition of the tense of many scholars and define the usage of each tense. In Chapter 3, I exhibit the definition of the Aspect. Aspect is grammatical and semantic one. Tense and Aspect is a simple grammar category, but they have a various spectrum.

Therefore, As the definition of the Tense and Aspect becomes clear it will be helpful to students who are received English education. In addition, the definition about tense and aspect needs in variety of areas, more research is needed.

■ keyword : | Tense | Aspect | Time | Perfect | Progressive |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확장한 논문임

접수번호 : #130108-005

심사완료일 : 2013년 03월 13일

접수일자 : 2013년 01월 08일

교신저자 : 김정오, e-mail : meridian@kwu.ac.kr

1. 서론

한 문장에서 동사가 표출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외면적인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시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작 양태의 내면적인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제와 시간의 차이와 더불어 시제와 상(aspect)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제는 장면 의존적인 특징이 있고 후자는 비장면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법적 도구를 사용하며, 같은 문법적 도구라도 사용되는 여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는 단어의 형태나 문장 구조의 정확성 또는 규칙의 올바른 적용을 다루는 문법을 중시하는 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native speakers)은 상황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felicitous) 언어 사용을 중시한다. 문법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을 중시하는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은 한계가 있으므로,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분야중의 하나가 시제와 상의사용이다. 2절에서는 상황¹의 시간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제의 정의를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 제 3절에서는 시제에 관한 전통적 견해들의 문제점과 원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 4절에서 결론과 함께 시제와 상의 상관관계를 밝혀 보겠다.

2. 시제의 정의

현실 세계의 시간을 언어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해당하는 적절한 범주표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제와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Jespersen의 A Modern English Grammar(1931)에서 다음과 같이 시제와 시간을 정의 하고 있다.

It is important to keep the two concepts time and tense strictly apart. The former is common to all

mankind and is independent of language; the latter varies from language to language and is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time-relations, so far as these are indicated in verb forms; but in English as well as in many other languages such forms serve not only for time-relations, but also for other purpose, and very often they are inextricably confused with marks for person, mood, etc.

이에 따르면 시간과 시제는 다르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시간이란 인간의 존재 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일련의 흐름이며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경과를 나타내며 언어 없이도 존재 할 수 있는 성질이다. 반면에 시제는 언어 없이는 존재 할 수 없으며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요소의 하나다. 즉 시제란 인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경과 과정을 언어기호인 동사의 형태로 표시하여 보려는 인간 언어의 산물이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어느 때나 변하지 않는 연속성과 공통성이 있는데 반하여 시제는 변화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Jespersen(1924)은 시간 개념을 하나의 자연시간과의 흐름과 맞추어 직선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화살표 상에 현재를 기점으로 그 이전을 과거 그 이후를 미래로 표시 하였다. 즉 시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현재지점은 시간적 폭이 없는 Zero point로 설명 하였다.

Benard Comrie (1976)에 의하면 시제는 시간속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의 순간을 지시하고 다른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다.² 이렇듯 Comrie는 시제를 직시적 범주로 보았다 영어에서 한정 동사는 언급된 시간이 그 문자의 다른 상황에 언급된 시간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갖는 상대적 시제를 갖는다. 그러나 색깔에 대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Comrie(1985)에서는 시제를 시간의 위치를 문법

1 상황이란 사건 행동 상태 과정 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tense... locates situations in time, usually with reference to the present moment, though also with reference to other situations

화한 복잡한 범주로 간주하고 인간 언어의 시제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 했다. 이론에 의하면 시제는 절대시제 속에서의 현재 순간인지 아니면 상대시제와 연관된 시제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지시된 사건이 기준점보다 이전시간인지 아니면 동시에 위치하는 현재 시간인지 또한 지시된 사건이 기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논의 하였다.

이런 복잡한 사건, 과정, 상태를 시간선과 연관시키는 것이 매우 복잡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용어로 정의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상황'이다. 상황이란 용어는 기술적인 용어로 일상 영어에서 대응하는 말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Comrie(1985)는 시제를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로 구분했다. 현재시간을 지시중심으로 간주하여 사용된 절대시제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문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시간을 지시 중심점으로 했을 때, 문법에서 시간지시에 관한 대부분의 언어학 작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3가지 기본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현재시제는 상황의 시간과 현재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과거시제는 상황이 현재시간 이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시제는 상황이 현재시간 이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하겠다.

절대 시제는 시간 속에 상황을 위치시키기 위한 기준점이 현재시간인 반면에, 상대시제는 상황의 위치에 대한 기준점이 반드시 현재시간이 아니라 문맥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 시점인 것이다. 영어의 본동사 형태가 거의 모든 예문에서 절대시간지시를 갖고 있지만, 영어의 비 확정동사 형태는 상대적인 시간을 갖는다.

Lyone(1977)에 의하면 tense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시적 범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시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문장에서 언급된 행동, 사건, 상태의 시간을 발화의 시간에 연결시키는 범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Leech(1971)도 시제를 deictic category로 보았는데 발화하는 순간 이외의 다른 때의 상황의 실재와 발화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상화의 심리적 존재사이의 연관성을 시제라 했다. 이렇듯 tense는 말에 언급된 상황의 시간과 발화하는 시간사이의 위치를 지시해주는 범주라는 것이 공통된 사실이며, 그 기본적인 의미를 상황의 실

재 존재와 발화하는 순간에 화자가 갖는 심리적인 존재 사이의 시간사이의 위치를 지시해주는 관계라고 규정한다. 시제는 상황 내적 시간(situation external time)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언어학자들에 주장에 의하면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고 또한 상대시와 절대시의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중심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화자의 의도나 상황 또는 문맥에 의해 수시로 중심점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Comrie가 사건, 과정, 상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상황이란 용어를 설정 한 것은 시제를 상황과 연결시킨 것과 연관시켜 볼 때 타당하다 하겠다.

2.1 시제의 용법

시제에 대한 언어학적 논의는 다양한 시제의 구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시제가 문법화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Hewson & Bubenik의 이론을 통해 시제의 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Hewson & Bubenik(1997)에 따르면 게르만어는 대개 2분(binary) 체계에 속하고 라틴어를 비롯한 로맨스어는 3분(ternary) 체계의 언어이다³. 영어는 게르만어에서 출발해서 이후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 로맨스어적인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시제에 있어서는 과거, 비과거 2분 체계의 언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시제는 우언적(periphrastically)⁴으로 표현된다.

현재의 영어에서는 현재 시제가 현재의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나 과거의 사건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보편타당한 내용을 기술하기도 한다.

- (1) a. We leave Japan tomorrow.
 - b. I go to school every morning.
 - c. John tells me the smiths are moving from
- No. 10

3 시제를 과거-비과거로 구분하는 2분 체계 언어와 과거-현재-미래로 구분하는 3분체계 언어로 나눌 수 있다.

4 영어의 시제를 정의하는데 과거와 현재의 구별은 본동사의 굴절을 통해 나타내고, 미래는 Auxiliary verb+본동사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언적 표현이라 한다. 우언적이라는 용어는 고영근(1981,2004)에 의해periphrastic를 해석한 것이다

위의 예문 (1a)는 현재가 미래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1b)는 일상적인 반복을 (1c)는 과거의 일을 기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기도 한다.

- (2) a. When he comes back, I'll tell him everything.
- b. If it rains tomorrow, the picnic will be called off.

위의 예문 (2a)는 시간부사절에서, (2b)는 조건의 부사절에서 각각 현재형이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예라 하겠다.

과거시제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사건이 반드시 과거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화자 또는 청자는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 과거시제의 주요 특징이다. 과거표시 부사구인 yesterday, last year 또는 in 2004등을 문장에 사용할 때 현재 또는 현재완료 시제를 사용하면 아래 (3)과 같이 비문법적이 된다.

- (3) *John has started school yesterday

이기동(1989) 가정법에서는 현실과 상상의 구분을 시간상의 구분 이라기보다는 인식상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시제가 사용되어 직설법 문장과 구분 하고 있다.

- (4)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또한 청자에 대한 거리를 표시하기 위해 현재형 대신 과거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요청이나 질문을 덜 직접적이고 덜 당돌하게 보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 (5) a. I hoped you would give me a hand with the painting.
- b. Would you open the door for me?

위 예문(5a)에서 화자는 청자가 현재 도와 줄 지 아닌지를 궁금히 여기면서도 과거시제를 사용했고, (5b)에서도 마찬가지로 will 대신에 Would를 사용함으로써 정중함을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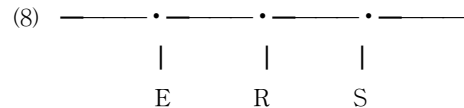
2.2 시제의 세 가지 시점

Comrie(1985:9ff)는 시제는 시간적 위치라고 정의하고 상이 비직시적인데 반하여 시제는 직시적(deictic)범주라고 정의 하였다. 따라서 시제에 대한 논의에서 먼저 대두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는 Reichenbach(1947)의 세 가지 시점이다.

- (6) Reichenbach(1947)의 세 가지 시점
 - a. 발화시(S): the point of speech
 - b. 사건시(E): the point of the event
 - c. 기준시(R): the point of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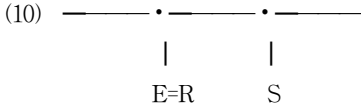
Dahl(1985)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아래 (7)의 영어 과거 완료형 문장을 가지고 설명 했다. 즉(7)에서 발화시란 이문장이 발화되는 시점이며, 사건시란 John이 떠난 시점을 말한다. 그리고 기준시란 발화시와 사건시 사이의 특정한 시점을 말한다. 이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8)과 같다. 영어에서 과거 완료형 문장은 이 세 가지 시점이 모두 다른 경우이다.

- (7) John had gone 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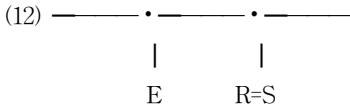


현재형은 *I see John*처럼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 기준이 되는 이 세 가지 시점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이며 과거시제는 사건시와 기준시가 일치하고 발화시는 다르다. 현재완료형은 발화시와 기준시가 일치하고 사건시는 다르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9) John went away.



(11) John has gone away.



3. 상의 정의

동사는 문장의 표정을 나타내는 문장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회로에 락의 표정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썹, 눈, 코, 귀, 입이다. 이 5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화가는 사람의 표정을 그린다. 우리는 이 5가지를 따로따로 말하지 않고 종합하여 '웃는 상' 혹은 '우는 상' 등의 표현을 쓴다. 마찬가지로 영어의 문장도 동사의 법(Mood), 시제(Tense), 상(Aspect), 태(Voice)로 문장의 표정을 나타낸다.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하여 하나로 어떤 표정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간단하다. 예를 들어 The report may have been being read.은 5개의 작은 상들이 모여 하나의 큰 상을 이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의 뜻을 가진 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는 '형(Form)'자를 대표로 과거형, 미래형, 완료형, 진행형, 능동형, 수동형 등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상(Aspect)'자를 대표로 부른다고 크게 잘못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상이란 동사에 관한 문법범주의 하나로써 시간 영역 내의 동작과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동작의 양태나 성질 등의 차이를 파악해 나타내는 문법 형식이다. 구체적인 '상'의 의미로는 지소(duration), 반복(iteration), 순간(momentariness), 동작(inception) 완료(completion) 결과(result) 등이 있다. 시제가 직시적

(deictic)인데 반해, 상⁵은 비직시적이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 대하여 Comrie(1976:4)는 그의 상(Aspect)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완료상과 미완료상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완료상은 어떤 내적 구조의 상황의 필수적인 구별 없이 외부로부터 상황을 보는 것이고 반면에 미완료상은 내부로부터 상황을 보는 것이다. 즉 상황의 내적인 구조에 깊이 관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 상황이 어떤 끝이 없이 혹은 어떤 시작 없이 전체 시간을 통해 마치 막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은 똑 같다고 한다.

즉 완결상(Perfective)은 시간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으로 마치 건물을 볼 때 멀리 떨어져서 건물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고 보 수 있고, 미완결상(Imperfective)은 건물 안의 어느 일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러시아어와 슬라브어에서는 완결상과 미완결상의 의미가 다시 세분화하여 순간상(momentariness), 기동상(inception), 종결상(completion), 결과상(result), 지속상(duration), 반복상(iteration)등 개념의 대립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된다.

조성식(1990)은 상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다소 의구심을 일으키지만 의미가 중요하게 변화는 두 단계의 차용과정(two step loan process)을 가진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vid는 대개 종류, 유형(kind, type)을 뜻한다. 문법적 측면에서 vid가 이용될 때 그리스어 eidos로 번역된다. 이는 원래 단순과 파생 어휘항목 사이의 구별을 가리킬 때 사용 되곤 한다.

영어에서 문법적 범주로서의 상의 존재를 인정하는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어의 완료형과 진행형을 러시아어의 완료상/미완료상의 대립에 해당한다고 보는 막연한 생각이 지배적 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상을 현대영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생성

5 상(Aspect)은 원래 슬라브어 vid의 역으로써 슬라브어 동사의 완료형식(perfective)과 미완료형(imperfective)으로 된 이항대립을 가리킨다. vid는 that which is visible을 의미하고, 이것은 화자가 동작을 기술하는 관점을 시사한다.

의미론자의 주장대로 상에는 두 가지 뚜렷한 형태, 즉 완료상과 진행상이 존재하고 있어 자유롭게 서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이렇듯 상이란 동사에 관한 문법 범주의 하나로써 시간 영역내의 동작 과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동작의 양태, 성질 등의 차이를 파악해 나타내는 문법양식이라 할 수 있다.

3.1 문법적 상

영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의 하나가 완료상의 형태인 'have + pp'이다. 이 완료상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되고 논의 되어 왔다. 여기서는 완료상의 정의에 관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또한 완료상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Jespersen(1958)에 의하면 완료형 'have + pp'는 고대 영어에서 시작 되었다고 한다. 원래의 형태는 'I c hoebbe thone fisc gefangenne'이고 그 의미는 'I have the fish (as) caught'였다. gefangenne는 형용사로써 thone fisc와 같이 굴절하게 된다. 현대영어에서 'I have caught the fish'인데 원래의 어순과 약간 바뀌었다. 이런 과정으로 완료형은 변형 되었고 과거시제와의 구별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완료형과 과거는 구별이 되고 있다. 완료형은 일정한 시간을 기점으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결 고리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과거는 단순히 과거의 어는 한 시점만을 나타내주고 현재 상태 정보는 전달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구별 할 수 있다.

- (13) a. Lucas went to Seoul.
- b. Lucas has gone to Seoul.

위 예문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두 문장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13a)는 '루카스는 서울에 갔다'라는 의미로 현재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며, (13b)는 루카스는 서울에 가고 현재 여기 없다는 현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좀 더 확실히 하기위해서 시간부사 last month or yesterday 등의 단어를 넣어 문장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의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a. Lucas went to Seoul last month.
- *b. Lucas has gone to Seoul last month.

위의 예문 (14a)는 시간부사 last month와 함께 쓰여서 과거의 한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나 b는 일단 과거표시 시간부사와 have gone이 함께 쓰일 수 없다. 이렇듯 현재 완료형은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관계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현재 완료형의 의미속에 현재의 시간, 즉 화자의 시간이 관여 한다는 점에서 완료형은 시제와 유사하나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시제와는 구별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Comrie(1976)와 Brinton(2000)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의 정의와 다름에도 완료형을 상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다루고 있다.⁶ 또한 Curme(1931)은 완료형을 시제의 일부로 다루고 있으며 Kruisinga(1931)는 상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황 자체의 특징을 명시 하는 것을 상으로 볼 때 완료형은 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완료형을 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에 적합한 상의 정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Greenbaum and Quirk(1990)는 영어에서 2개의 상, 진행형과 완료형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술하는 상의 정의를 보면 'a grammatical category that reflects the way in which the meaning of a verb is viewed with respect to time'⁷라 했다. 여기서 화자의 관점을 읽을 수 있는 점에서 Comrie(1976)와 공통점을 가지며 'time'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을 피하고 있다. 즉 Comrie(1976)가 말하는 상황의 내적 시간인지 혹은 과거의 상황을 현재와 연결하는 것인지 분명한 시간을 밝히지 않음으로 완료형도 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Kreidler(1998)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 (15) We experience events and situation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and these points of

6 Palmer(1974:49'54)는 'phase'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완료형을 다룬다.
7 Greenbaum and Quirk (1990) 박노민, '상의정의'(1999) 한국영문법학회 P4 재인용)

view are often incorporated into our description of the events and situations. ---The expression of all these viewpoints is called aspect.⁸

(15)에서 상이란 관점의 표현일 뿐 상황의 시간적 특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완료형 역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3)에 따르면 ‘완료형은 상의 일종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3.2 의미적 상

앞에서 논의한 문법적 형태를 갖는 진행상과 완료상과는 달리 동사 자체의 의미에서 구현되는 이른바 의미적 상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속상(duration), 반복상(iteration), 순간상(momentariness), 기동상(inception), 완료상(completion), 결과상(result) 등이 그 예이다.

- (16) a. John continues to work his job.
- b. He hits the target.
- c. Girls giggled.

(16)의 동사들이 나타내는 시제는 각각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즉 (16a)에서는 continue의 시제와 관계없이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16c)에서는 시제가 과거이지만,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과거에 반복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반복적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복상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렇듯 문법적 상과 의미적 상의 차이는 형태상의 유효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문법적 상은 통사 형태적으로 명시적 구조를 갖는데 반해서 동사의 의미적 상은 (16)에서 보는 것처럼 형태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이들이 나타내는 상적 의미가 상이하다는 사실로부터 문법적 상과 의미적 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Vendler(1967)는 동사가 나타내는 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상을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기간성, 변화, 그리고 경계성에 기초하여 상태,

활동/과정, 완수, 성취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상태는 비경계이고, 비종지이다. 즉 상태는 본래의 경계도 없고 종결점을 형성하는 정점도 없다.

- (17) a. John is taller than Danny.
- b. The light is on.
- c. Clive knows my brother.
- d. Coal and coke are different.
- e. The cat is asleep.
- f. Your umbrella is in the hall.

(17)에서 보는 것처럼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나 John이 Danny보다 키가 큰 상황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과정(processes)과 활동(activities)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18) a. John walked in the garden.
- b. The leaves fluttered in the wind.
- c. Clive pushed a supermarket trolley.
- d. They chatted.
- e. The guests swam in the river.
- f. The visitors played cards.

과정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비경계이다. 만일 (18b)가 참이라면, 이 말이 참인 경우는 나뭇잎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는 한 순간에는 공간의 어떤 지점에 있다가, 다른 순간에는 다른 지점에 있는 경우이다.

완수(accomplishments)는 가장 명료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요소이다. 즉 완수는 과정과 정점에 이르는 활동이나 종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 (19) a. John built a house.
- b. Marcia ate an apple.
- c. Jones ran a mile.
- d. We did the dishes.
- e. The new incumbent made a speech.
- f. Raffael painted a triptych.

8 Kreidler (1998) 박노민, '상의정의'(1999) 한국영문법학회 p14 재인용)

완수는, 기술된 과정이 정점에 이르거나 사건이 끝난 결과라는 점에서 규범적인 유경계 사건이나 종지사건을 말한다. 예컨대 (19b)에서 기술한 사건은 그 사과를 다 먹었을 때 종결된다. 그리고 (19f)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건은 3면화가 완성되었을 때 종결된다. 물론 Raffael이 다른 작품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더라도 최근의 미술활동은 (19f)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건의 일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완수와 유사하지만, 오직 기간의 지속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성취로 간주하고 있다.

- (20) a. Clive realized that Deirder was gone.
 b. Then he recognized her.
 c. They reached the summit.
 d. Jones noticed a mark on the wallpaper.

대체로 성취는, (20a)에서 Deirder가 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녀가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로의 전환과 같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이다. 일단 Deirder가 갔다는 것을 Clive가 알게 되면 인지는 완성되는 것이고, 계속될 수 없으며, 그래서 그 사건은 유경계이다.

이렇듯 매우 다양하게 보이는 여러 상의 정의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며 또한 그러한 상의 정의가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상의 정의가 있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일한 상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학자들은 문법/의미범주, 시간적/비시간적 정의, 상/어성, 완료형의 포함 등에서 서로 상이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 정의들을 요소별로 분석하고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는지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시제와 상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법범주라고 볼 수도 있고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아주 다양한 스펙

트럼을 가진 범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문법에서는 이들이 보통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현대 언어학에 와서야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언어의 정의가 출발점이 되듯이 시제와 상의 정의에서 문법을 기술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어의 시제와 상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상응하지 않는 시제 혹은 상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외 적인 문장, 혹은 설명하기 곤란한 문장들이 있다. 어떤 언어이든지 그 언어의 핵심 부분에는 동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사의 핵심은 시제와 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영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겠다. 시간은 시제의 출발점이고 동사 원형에 굴절을 가하여 과거의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현재 형태소를 붙여 현재를 나타낸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이 시제와 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한다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빠르게 얻을 것이다.

앞 장에서 다루어 보았지만 상과 관련하여 직시해야 할 내용이 어휘적 상과 문법적 상이 있고 그것의 차이나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면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시제와 상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 이론 또한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영어의 시제와 상에 관계되는 또 다른 이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 문헌

- [1] L. J. Brinton,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 John Benjamins, 2000.
- [2] G. Carden, "English Quantifiers,"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3] R. Cooper, "Auantification and Syntactic Theory," Reidel, Rordhrect, 1983.
- [4] B. Comrie,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5] B. Comrie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6] G. O. Curme, "Syntax: A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Boston: Heath and Company, 1931.

[7] S. Greenbaum and R. Quirk,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1990.

[8] Hewson and Bubenik, "Tense and Aspect in Indo-European Languages," Theory, Diachrony, Typology. Amsterdam: Benjamins, 1997.

[9] 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 Unwin, 1924.

[10] O. Jespersen, "The Modern English Grammar," London: Allen & Unwin, 1909-49.

[11] O. Jespersen, "A Modern English Grammar," Pt 4.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31.

[12] O. Jespersen, "Essentials of Grammar,"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33.

[13] J. Lyons, "Semantics I, II,"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7.

[14] R. Montague, "PTQ, in Approaches to Natural Language," Reidel, Dordrecht, 1973,

[15] Z. Vendler, "Facts and Event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1967.

[16] 김경훈, "한국대학생의 독해 지문을 활용한 영어 시제 습득," 한국콘텐츠학회, 제8권, 2008.

[17] 박노민, '상의정의' 한국영문법학회, p.14, 1999

[18] 이기용, "Syntax ns Semantics of Prenominal Negation in the Frame work of Montague Frammar," Language, pp.1-2, 1976,

[19] 이기용, *On Montague Grammar*, 한신문화사, 서울, 1985.

[20] 이영현, "한국어 제약 관형어의 λ -범주 문법적 의미표시," 애산학보 제11권, 서울, 1991.

[21] 이영현, *기초형식 의미론*, 한신문화사, 서울, 1995.

[22] 이영현, *형식의미론*, 한신문화사, 서울, 1996.

[23] 이영현, "한국어 중격구조와 논항," 언어학, 제11권, 제1호, pp.89-110, 2003.

[24] 조성식, "Introduction Linguistic," 1990.

[25] 허성태, "러시아어의 시제와 상," 세계 주요언어 비교포럼 발표논문,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과제, 2005.

저 자 소 개

김 정 오(Jeong-O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박사)
- 2008년 8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어린이영어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학, 영어교육